사노피, 한미약품 개발 당뇨신약 판매사 물색

사노피는 10일 한미약품이 개발한 당뇨치료 주사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을 마무리한 후, 직접 판매하는 대신 별도 파트너사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노피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자사 항암 분야 신약 파이프라인 프로그램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성공적인 상용화 및 판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침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효능과 안전성과는 무관한 선택이며, 한미약품과의 라이선스 계약 세부사항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사노피 관계자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글로벌 3상 임상 프로그램의 완수에 전념할 것"이라며 "한미와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더한섬하우스 광주점 내부 /한섬

더한섬하우스 큐레이션으로 신흥상권 잡는다

한섬이 '패션 블루오션'인 제주도 공략에 나선다. 백화점과 대형 패션전문 매장이 없는 제주도에 한섬의 신개념 콘셉트 스토어 '더한섬하우스'를 앞세워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내년 1월 3일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에 콘셉트 스토어 '더한섬하우스(The Handsome Haus)' 제주점을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더한섬하우스'는 한섬의 새로운 오프라인 유통 채널로 광역 상권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는 콘셉트 스토어다. '더한섬하우스' 제주점은 총 2개층(지하 1층~1층), 1298㎡(394평) 규모로, ▲지하1층 여성 캐릭터 ▲1층 여성캐주얼·남성·고객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타임·시스템·마인 등 13개 한섬 주요 브랜드의 남녀 의류·액세서리 등 1000여 제품이 선보여진다.

제주점이 들어서는 제주시 오라2동은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으로, 최근엔 복합관광단지 건설이 검토되는 등 제주도 내 신흥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섬은 '더한섬하우스' 제주점을 통해 제주도 지역 고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향에 맞춰 다양한 패션 브랜드 제품을 제안하는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제주지역 주민들을 위해 편안하게 방문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매장 환경을 꾸몄다. 매장 전체를 '갤러리' 콘셉트로 구성했는가 하면, 각 층에 고객용 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1층엔 171㎡(약 52평) 규모의 VIP 라운지가 조성된다. VIP 라운지에서는 음료 서비스와 함께 스타일링 클래스, 소규모 문화체험 강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펭하!'… "펭수 다이어리 CU서 찜하세요"

〈펭수 하이〉

최근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며 명실상부 대세로 자리잡은 '펭수'를 CU에서 만날 수 있다.

CU는 이달 12일 멤버십 앱(APP) 포켓CU를 통해 2020년 에세이 다이어리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이하 펭수 다이어리)'를 1만 부 예약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펭수 팬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출시된 펭수 굿즈 중 가장 인기 있는 상품으로, 출시 소식과 동시에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한 바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 펭수 다이어리를 선보이는 것은 CU가 처음이다.

구매 방법은 포켓CU 내 '예약구매' 탭에서 상품 픽업을 원하는 점포와 날짜를 고객이 직접 지정하고 결제하면 이달 26일부터 오프라인 점포에서 상품을 픽업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U 펭수다이어리 /BGF리테일

조직검사 대신할 영상진단법 개발

출혈 없이 호르몬 수용체 판단

서울아산병원 울산의대 핵의학과

조직 떼는 과정서 기흉위험, 통증 소요 시간 15분 내외 빠른 검사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문대혁 교수가 PET-CT사진을 판독하고 있다

암 조직을 직접 채취하는 대신 영상검사 만으로 여성호르몬 수용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조직검사가 어려웠던 재발 혹은 전이된 유방암 환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은 10일 울산의대 핵의학과 문대혁·오승준·채선영 교수팀이 18F-FES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영상 검사를 통해 재발 혹은 전이된 유방암 환자들의 여성호르몬 수용체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18F-FES는 PET검사용 의약품으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생물학적 활성을 측정할 수 있다.

여성호르몬 수용체 진단은 유방암 환자들의 향후 치료방법을 결정짓는 필수 검사다. 유방암 환자 중 70%를 차지하는 여성호르몬 수용체 양성의 경우 호르몬에 의해 암세포가 성장하기 때문에 항호르몬 치료를 진행하지만, 여성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

처음 유방암을 진단하는 경우에는 종양의 양성, 음성 여부를 알기 위해 필수적으로 조직검사를 하게 되고, 이때 떼어낸 조직으로 여성호르몬 수용체 검사도 함께 한다. 하지만 재발하거나 전이된 유방암의 경우에는 여성호르몬 수용체 검사 만을 위해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조직검사는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이 필요해 출혈이나 기흉의 위험이 있고, 통증도 동반된다. 또 전이된 부위가 여러 군데일 경우 모든 곳을 검사하기 어려우며, 뼈와 같이 전이된 위치에 따라 조직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문대혁 교수팀이 개발한 영상진단법은 18F-FES시약을 유방암 환자에게 주사한 뒤 PET 촬영을 통해 몸 전체에 전이된 병변을 한 번에 검사한다. 소요시간은 15분 내외로 아주 짧고 통증도 없어, 환자들이 조직검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연구팀이 2013~2016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재발 혹은 전이된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85명을 대상으로 조직검사와 새로운 영상진단법인 18F-FES PET검사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영상 검사에서 양성으로 진단된 환자는 조직검사 결과 역시 100% 여성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진단돼, 18F-FES PET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문 교수는 "조직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재발 혹은 전이된 유방암 환자들도 이제는 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여성호르몬 수용체 진단결과를 알 수 있게 돼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18F-FES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한 최초의 연구로, 보건복지부 과제인 선도형특성화연구개발사업과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종양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됐으며 최근 임상 3상을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에피스 中서 첫 임상… 시장 진출 '첫 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착수
중국인 유방암 환자 208명 대상
2월 'C-브릿지 캐피탈'과 계약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중국에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에 착수한다.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중국보건당국(NMPA)으로부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SB3(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임상3상 시험 계획서(IND)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1분기 첫 환자 방문이 예정된 이번 임상 3상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중국서 진행하는 첫번째 임상으로서, 중국인 유방암 환자 총 2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SB3와 오리지널 제품인 허셉틴 간 안전성, 유효성 지표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2월 중국 벤처펀드 운용사 C-브릿지 캐피탈과의 중국 내 임상, 인허가 및 상업화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바 있으며, C-브릿지 캐피탈이 설립한 바이오 기업 '에퍼메드 테라퓨틱스'와 함께 이번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

C-브릿지 캐피탈은 2014년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벤처펀드 운용사로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진단 등 헬스케어 서비스 전 분야에 걸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운용 자산 규모는 약2조원에 이른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향후 C-브릿지 캐피탈과 SB3 외에도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SB11),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SB12),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SB15)에 대한 중국 내 임상, 인허가 및 상업화를 협업하게 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헬스케어 건강관리앱서 전문가 컨설팅

GC녹십자헬스케어가 현대해상과 함께 '굿앤굿 어린이케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전면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굿앤굿 어린이케어'는 건강 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앱이다. 회사 측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신설하고, 전반적인 앱 기능과 디자인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굿앤굿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임신, 출산 과정에서 늘어난 체중으로 인한 산모의 우울증, 각종 대사 질환, 비만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신설됐다. 전문가가 체중, 식습관 등 약 600여 만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 알림메시지를 통해 다이어트 관련 건강 콘텐츠도 제공한다.

아이의 건강 관리를 돕는 '굿앤굿 유행 질병 정보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GC녹십자헬스케어의 축적된 영·유아 건강 상담 빅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분석 후, 위험도가 높은 유행성 질환을 선별해 전문 의료 정보와 함께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세경 기자

'굿앤굿 어린이케어' 애플리케이션 화면